

미국인 수만 명, 워싱턴 D.C.서 회개와 중보기도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지난 26일 수도 워싱턴D.C.의 내셔널몰에 모여 나라를 위한 회개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분열이 과열되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기독교인들이 모였다.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비치에서 온 켈리 흡우드 씨는 워싱턴 기념탑 앞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처음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이끄는 기도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갔는데, 일찍 도착해서 이곳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최근 며칠간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는 말씀을 계속 묵상했고, 나라의 수도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자녀들과 손자들 둔 흡우드 씨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같이 기도해야 한다. 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지난 26일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내셔널몰에 모여 나라를 위한 회개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크리스천포스트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미시간주 칼라자주 출신의 르네와 스티브 백워드 부부는 4명의 자녀 중 3명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그녀는 “코로나19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고 했다.

워싱턴 기념탑 앞, 스미스 소년 근처에서 열린 ‘더 리턴(The Return)’ 행사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링컨 기념관을 따라 이동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정오에 이곳에서 기도 행진을 시작했다.

그레함 목사의 행진은 기념관에서 국회의사당 건물까지 1.8마일(2.89km) 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중간중간 행진을 멈추고 최초 대응자, 경찰, 그리고 미국 봉사단원들

의 보호, 정부 지도자들을 위한 지혜, 분열의 회복과 화해, 미국이 유대-기독교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

조지아주 마리에타 출신 마케팅 및 영업 전문가 톰 호틀린 씨는 “나와 아내가 속한 미시간주 출신의 친구들의 격려로 내셔널몰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나라에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최근 며칠 동안 인종적·정치

적 분열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구주께 겸손과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원하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예수님께 의지하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치유하고, 다투지 않고 함께 살아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호틀린은 아이오와 대학의 풋볼 키커로, 1985년 아이오와-미시간 경기에서 유명한 필드골을 만들기도 했다.

행진 참석자들이 링컨 기념관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념관과 국회의사당으로 향할 때, 소규모 단체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금은 엘리아 패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등 찬양을 불렀고, 다른 이들은 미국을 위해 하나님께 자비를 부르짖었다.

뉴저지주 프린스턴의 중국계 미국인이자 침례교 신자인 케니 슈(23) 씨는 현재 워싱턴D.C.에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종 간의 화합을 높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긴즈버그 후임 대법관에 ‘반낙태’ ‘반동성애’ 배럿 판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erg)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48)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에 공식 지명하며 “그녀는 탁월한 업적, 우뚝 솟은 지성, 헌법에 확고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 시절 “사람의

인생은 잉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낙태 반대 논문과 연설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배럿은 5세부터 16세까지 7명의 자녀들을 두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흑인 입양아이고, 다섯 살 막내는 다윈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녀가 버려진 아이티 출신의 흑인 아이들을 입양하고, 산전 검사에서 막내의 장애(다윈증후군)를 발견했음에도 출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앙과 삶이 일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의 CNN도 “배럿의 자

녀는 진영을 떠나 많은 사람에게 경이로움과 감동을 안겨주는 스토리”라고 전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배럿을 가리켜 “보수가 바라는 모든 것을 충족하는 후보”라며, 그가 인준되면 단순히 대법관을 넘어 향후 수십 년간 미국 보수 진영의 중심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치고 있다.

배럿은 동성애에 반대하며, 오바마케어도 반대한다. 보수 법률가 고(故) 앤터닌 스칼리아(Antonin Scalia) 대법관의 서기를 지내면서 ‘스칼리아의 후계자’로 불리기도 했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 노터데임대 로스쿨

다. 스칼리아 대법관이 자신을 거쳐간 여러 서기 중 가장 아낀 인재였다고.

배럿은 수락 인사말에서도 “스칼리아 대법관으로부터 헌법을 문헌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배웠다”고 말했다. 또 “판사는 정책 입안자가 아니며, 정책에 대한 어떤 견해도 단호히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배럿 판사를 제7연방고법 판사로 발탁한 바 있다. 배럿 판사 지명에 많은 기독교계 지도자들도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종교자유수호에 앞장서 온 조니 무어(Johnnie Moore) 목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사법부에 완벽한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가족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회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자신의 공약을 지켰으며, 검증되고 독보적인 경력의 후보자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미주감신대, 헨리아펜젤러대학교로 새로운 도약 준비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총장 임승호 목사)가 헨리아펜젤러대학교(Henry Appenzeller University)로 교명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헨리아펜젤러대학교라고 교명을 변경한 데에는 미국 북감리교회에서 파송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였던 헨리 아펜젤러의 선교 정신을 이어가려는 학교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 감리교 산하 신학교라는 이미지와 선입견을 탈피해 더 많은 이들에게 양질의 신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발전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헨리아펜젤러대학교는 글로벌 온라인 시대에 발맞춰 100% 온라인 신학 교육을 제공하고 미주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온라인

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교와 MOU 체결 및 공동학위 프로그램, 선교사 훈련원 등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임승호 총장은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는 감리교의 위대한 전통과 신학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전문성을 가지고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할 이 시대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요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ABHE, ATS, BPPE, CHEA에 가입된 미연방정부 학력인가를 받은 정규 신학교인 헨리아펜젤러대학



2018년도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학위 수여식

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연회가 1996년에 설립하였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가 인준한 기감 산하 신학교로 정규 목회자 양성 신학

교육 기관이다. 신학사(B.Th.)과정, 신학석사(Th.M.)과정, 목회학석사(M.Div.), 목회학 박사(D.Min)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자는 소정

의 과정을 거쳐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www.mtsamerica.edu
김동욱 기자

LA 카운티 한인 위탁아동 60명 넘어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가 오는 10월 위탁아동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등지찾기’ 온라인 교육과정을 한국어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줌(Zoo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10월24일, 31일, 11월7일, 14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0시간에 걸쳐 한국어로 무료 진행된다.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https://tinyurl.com/kfamAFFI> 에서 사전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교육 전에 마쳐야 한다.

20시간 교육기간 동안 위탁아동

을 이해하고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 및 정부 지원, 필수 지원 서류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위탁자녀를 돌보고 있는 가정의 감사로 감사, 위탁가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위탁부모의 경험, 위탁자녀들을 돌보면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

위탁가정이 되려면 25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지문검사(Live Scan)를 통한 신원 조화를 받아야 한다. 오리엔테이션과 20시간 교육과정을 마치면 소셜워커의 가정방문, 인터뷰

등을 거쳐 위탁부모가 될 수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캐서린 엄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한인 및 아시안 전문 위탁가정을 교육 및 서비스하는 위탁가정 에이전시(FFA)이다”라며 “위탁가정 한국어 교육과정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탁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LA 카운티에는 평균 3만5000명의 아이들이 친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아시안은 680여명, 한국계는 60~1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2014년 위탁가정 프로그램인 ‘등지찾기’를 처음 시작했으며, 한인 어린이들만 아니라도 한인사회에서 보듬어 안아야 한다는 한인사회 관심 속에 현재 60여 가정이 위탁가정 자격을 갖췄다. 이 가정들은 한인뿐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다.

위탁가정 온라인 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김지나 소셜워커 213-235-4867, jinakim@kfamla.org 로 하면 된다.

“사립 학교 교사 자격증, 평신도 및 선교사·신학생에게 반드시 필요”

10월 1일(목) 오후 3시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



미주 한인 복음주의 신학교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는 사립 학교 교사 자격증 설명회를 오는 10월 1일(목) 오후 3시, 온라인 화상 컨퍼런스를 통해 개최한다.

이날 온라인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GMU 홈페이지(www.gmu.edu)에서 접속할 수 있다. 설명회는 △ACSI 사립학교 교사 및 교장, 교감 자격증의 의미 △GMU학생이 가능한 ACSI Certificate 종류 △ACSI Certificate 자격증 신청 절차와 방법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자격 및 절차 △유치원 원장 및 초·중·고등학교 교감 자격 및 절차 등을 주제로 진행되며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행정처장 제임스 구 교수는 “사립학교 교사 자격증은 GMU에서 배운

과목들을 미국 및 해외 선교회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인증을 받

는 절차”라며 “다음세대를 향한 교육선교에 관심을 가진 모든 평신도, 교육자, 선교사, 신학생, 등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이어 “GMU는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캠퍼스와 온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모든 과정은 제공하고 있다”며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www.gmu.edu, 전화 714 525-0088, 이메일 admissions@gmu.edu로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L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www.marhlaw.com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이민법
낮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생활고 겪는 미주 한인들, 귀국 및 정착 지원 받는다

“해외에서 노숙하거나 병들어 오갈 데 없는 한인들을 고국으로 데려와 치료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 정착이 어렵고 한국에서 다시 인생을 계획하고 싶다면 주저 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재외한인구조단(단장 권태일)은 불법체류나 사업 실패, 생활고, 도박, 중독, 질병 등으로 해외에서 노숙하거나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한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재외한인구조단을 통해 구조를 받은 해외한인들은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국 등지에서 500여 명에 달하고, 미주에서도 6명의 한인이 구조를 받았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미주에서도 한인들의 실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렌트비를 감당하

지 못해 노숙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구조 및 귀국 문의가 늘고 있다.

미주한인구조는 웰드웨어USA 대표 강태광 목사가 담당한다. 강목사는 지금까지 40여 통의 구조 문의 및 요청 전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 LA지역이 30여 통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와 라스베이거스에서 문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한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면 건강을 되찾고 삶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 요청을 받으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귀국 서류 작성과 한국에서 기거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있다”며 “고국에서 새 희망을 품고자 하는 한인분들은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재외한인구조단을 통해 지원자로 선정이 되면 귀국 항공료와 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적응 훈련과



월드웨어 USA 강태광 목사 ©기독일보

기술훈련 등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재활훈련도 받을 수 있다.

구조에 필요한 기금은 월드웨어에서 지원하며, 구조 요청은 전화

323-578-7933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나성금란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무료 온라인 아카데미 개설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이석부 목사와 중고등부 학생들

코로나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아카데미를 개설해 눈길을 끈다.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석부 목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사회가 폐쇄된 가운데 커뮤니티를 위해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초등학생들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한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온라인 아카데미를 열었고, 현재 중고등부 학생 11명이 초등학생 20여 명의 숙제와 공부를 돕

고 있다. 온라인 아카데미는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가을학기와 봄학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이석부 목사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마음과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

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견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 아카데미 문의는 이메일 thegoodwellacademy@gmail.com 또는 전화 424-232-7066로 할 수 있다.



미주 복음방송 2020 '공개 헌금의 날' 개최

10월 9일(금) 하루 진행, 독감 예방 접종도 실시

상업광고 없이 후원헌금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오는 10월 9일(금) 하루 동안 '공개 헌금의 날'을 진행한다.

청취자들은 헌금은 경기침체로 인한 방송 운영비용 및 노후 방송 송출 장비 교체 및 보안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 헌금은 LA GBC 스튜디오와 애너하임 GBC 본사를 비롯해 다이아몬드바 한남체인, 플러턴 아리랑 마켓, 가든글로브 아리랑마켓, 부에나파코 한남체인,

라팔마 한남체인 등지에 부스가 마련된다.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각 부스를 방문해 헌금에 참여할 경우 2021년 탁상용 캘린더와 선물을 증정한다.

또 열반인온누리교회, 토렌스 남가주살롬교회, 나성순복음교회, 충현선교교회 주차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헌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메디컬 그룹과 남가주 한인 간호사협회 후원으로 성인(18~65세)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도 실시한다.

문의는 전화 714-484-1190 또는 웹사이트 WWW.kgbc.com으로 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의연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예교수(정신대 경매교수), 이종희교수(예수대(대표)), 송정명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로(미주대표)), 신광원목사(복음전대 대표),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로 의연하지 않았다'는 북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과,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 GBM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영상기도회) Multi-Ethnic Virtual Prayer Gathering

COVID 종식, 11월의 선거, 부흥과 회복

일시 : 2020년 10월 16일(금) 밤 7:30~9:30
현장 기도회 : 은혜한인교회
중계 : 미주복음방송, CTS America, 은혜한인교회GKC TV, YouTube :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

지금부터 비상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Covid-19 극복을 위하여!
11월에 있는 각 선거를 위하여!
미국 건국정신인 청교도신앙 회복을 위하여!

대표대회장 : 한기홍 목사
준비위원장 : 강순영 목사(310-995-3936)
공동준비위원장 : 이성우 목사(213-675-6493)
사무총장 : 강태광 목사(323-578-7933)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76

“아프리카 우간다 김세현 선교사에게서 온 편지”

15년 세월이 흘렀다. 김 선교사 가정이 아프리카 우간다로 장기선교 결정을 내리고 필자의 교회를 방문했던 때가 생각난다.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 대책도 없는 듯 출발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깨달음은 그 가정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미 모두 다 준비해 두셨었다는 것을.

늘 그리던 9월의 선교지 소식을 원문대로 전한다.

“1.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 선교사는 당시 오직 시골 마을마다 찾아가는 성경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받은 성도가 땅 5천 평을 기증하였습니다. 그 땅에 교회가 없다고 한국 성도들이 교회 건축을 도와준다면 점쟁이가 주업인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고향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2. 하나님은 아프리카 우간다 성도들의 기도에 신음소리 같은 것이라도 듣고 계셨습니다. 부산 제5영도교회(조강제 목사 시무), 딱 한 교회가 연락 와서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한 교회면 충분했습니다.

3. 김 선교사가 받은 이 땅의 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몇 발짝 가지 못해 소가 고여있는 물을 마시려 하다가 더러운 냄새로 고개를 흔들고 가는 장면을 쳐다봅니다. 이어서 목욕을 마친 할아버지의 이 더러운 물을 손으로 마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4. 안타까운 현장을 김 선교사는 목격하고 부부가 하나님께 하소연과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이런 현장을 보게 하십니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산 한울교회 (제인출 목사 시무)의 권사님께서 우물을 파도록 헌금해 주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한 명의 헌신된 자를 부르시고 아프리카 땅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물이 파지고 수량도 풍부하여 몇 십 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우물



이상훈 목사 주미전교회 담임

이었습니다.

5. 그 이름 김숙연 권사님. 우물에 대한 관심과 지역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오신 분입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또 이 지역을 기억나게 해 주시고 긴급 식량 지원을 하시고 싶다고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6. 우물을 중심으로 100 가정의 성도들에게 옥수수 가루 7킬로와 콩 4킬로씩 나누어주었습니다. 아울러 주변 불신자들 30가정을 선택하여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 가정 고아들을 중심으로 정부에서조차 관심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7. 공급의 과정에서 이들은 뛰며 찬양드렸습니다. 아직도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가지고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한국 성도들을 통해 돌보시고 기도에 응답해주신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또한 불신자들은 교회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등록하겠다고 합니다.

8.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잃은 자들의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들. 사랑 나눔은 영혼을 찾고 구하고 얻는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2020. 9. 30 우간다 선교사 김세현 노미정 배상”

그때그때 돕는 동역자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한 종에게 신실한 이들이 함께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역사하심을 굳게 믿는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2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쇠망사’

로마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 많지만, 로마 멸망에 관하여는 에드워드 기번(1737~1794)의 ‘로마제국쇠망사’를 따라갈 작품은 없다고 합니다. ‘로마제국쇠망사’는 자료, 기술방식 그리고 유려한 문체로 명작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책은 구상에서 출간까지 23년 걸렸습니다. 27세에 시작해 50세에 완성합니다. 이 로마제국쇠망사는 뛰어난 역사서이자 훌륭한 문학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 (Edward Gibbon:1737~1794)은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고집과 열정으로 그의 인생이 요동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도서관에 다니며 역사와 고전을 익히고, 아버지의 설득으로 15세에 옥스퍼드대 모들린 칼리지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신학을 접하며 가톨릭으로 개종하자 에드워드 기번의 개종을 문제 삼은 그의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그를 스위스 로잔으로 보냅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잔에서 중요한 두 만남을 갖습니다. 먼저는 퀴르쇼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결혼을 못 하자 그는 “나는 연인으로서 탄식했고, 아들로서 복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로 그는 칼빈과 파이바르 목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개신교 신자가 되고 라틴 고전 문학과 프랑스 문학을 깊이 공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역사를 깊이 공부할 준비를 합니다.

‘로마제국쇠망사’는 AD 2세기 트라야누스황제(이그나티우스 감독 사형을 집행한 황제)와 안토니우스 황제 시대로부터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동로마의 멸망)까지 1400년간의 로마역사입니다. 그가 다룬 역사는 대단합니다. 로마 황제들에 관한 세세한 이야기, 기독교의 확립, 게르만족의 대이동, 이슬람의 침략, 몽골군의 서방원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정,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이르기까지 서구역사의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방대한 자료수집과 그의 역사학자로서의 통찰력에 탁월한 문장까지 더해져 ‘로마제국쇠망사’는 흔들리지 않는 명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로마는 조그만 도시국가였습니다.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불멸의 성공을 거둬 거대한 제국을 이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거대한 로마제국의 쇠망 역사를 다루며 로마의 쇠락 이유를 언급합니다. 에드워드 기번에 의하면 로마는 외부 침입이 아닌 제국 내부의 문제로 멸망되었습니다.

기번(Gibbon)이 전하는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기거 허연은 ‘명작산책’이라는 그의 글에서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허연기자가 정리한 로마 멸망의 이유는 첫째, 경솔한 남년의 결혼관과 이혼의 급증으로 가정에 대한 경시 풍조가 로마 멸망의 원인이었고, 둘째는 점점 많아진 세금 징수와 대중들에게 제공한 공짜 빵과 서커스 즉 과한 복지로 형세 낭비입니다. 셋째는 상류층의 지나친 사치와 쾌락 추구와 잔인한 운동 경기로 국민성이 야수처럼 잔인해진 것을 지적합니다. 넷째는 외세를 대비한 군비 확장은 했지만, 내부의 적은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섯째는 기독교의 부패가 로마쇠락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타락한 종교가 특권층의 독점물이 되어 시민을 이끌지 못해 로마 멸망

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제국쇠망사로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로마의 쇠락 이유로 기독교를 언급하며 로마교회를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영국은 물론 전 세계 기독교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서구사회에 대한 기독교의 지배력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 놓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은 비기독교인과 무신론자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심지어 에드워드 기번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 신자였습니다. 그가 로마교회의 타락을 지적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신학자는 종교가 하늘로부터 순결하게 내려온 것으로 기본 좋게 서술할 수도 있지만, 역사가는 훨씬 음울한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종교가 약하고 타락한 인류 사이에 오래 머물면서 오류와 오전 같은 것이 들어갔다는 것을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자신이 로마교회의 부패를 비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제국쇠망사는 많은 사람의 애독서가 되었고 명작의 품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열등생이었던 처칠은 로마제국쇠망사를 애독함으로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그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된 이유를 로마제국쇠망사를 애독한 것에 있다고 스스로 설명합니다. 처칠뿐만 아니라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 인도의 수상 네루 등도 본서를 애독서로 꼽았고 받았던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듣노라면 다시 인문학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나 위대한 부흥 운동을 이끈 지도자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탁월한 설교가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모두 탄탄한 인문학적 식견을 자랑합니다. 역사책과 고전 문학작품으로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가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희,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최첨단 기어에서 뛰어드는 코어와 현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베델교회 특별집회 “동성애 금지, 하나님의 선한 명령”

김희석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구약학)가 23일 베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특별집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교수는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질서로 인해 통치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드셨다”고 했다.

이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며 “여기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이며 둘째는 지혜이다. 율법에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으며 그 중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이 계명에서 ‘간음’은 특정항목에만 해당되기보다 간음과 같은 종류의 일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대원칙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지혜를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욱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일컫는다”며 “이 지혜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을 보여준다. 특히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율법과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며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바른 사랑의 방법과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고 했다.

그는 “구약에서 레위기 18장 22절, 20장 13절, 25~26절을 통해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원칙으로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며 그 중에서 동성간의 관계가 금지됨을 보게된다”며 “그리고 사사기 19~20장은 동성애에 관한 스토리가 등장한다. 한 레위인 부인의 간음 사건을 시작으로, 베냐민 지파 기브온 주민들이 동성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살인 사건으로 번지게 되면서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깨져 버린 험악한 범죄 현장을 표현하므로 동성간의 관계를 포함한 성적인 죄악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죄악의 행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신약에서는 로마서 1장 27절이 많은 성적인 죄악들 중 동성애에 관하여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고린도전서 6장 9~10절, 디모데전서 1장 9~10절을 통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번성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이 범주에 어긋나는 그 어떠한 경우도 모두 성경은 죄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 주님의 통치 질서에 반하는 것을 죄로



김희석 교수가 베델교회 특별집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베델교회 유튜브

규정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죄를 죄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특히 “동성애 문제에 있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죄로 여겨졌을지 모르나 현 사회에서 이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지 질문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는 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바르고 아름다운 성이 무엇이며 그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반복해서 말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전반을 보여주는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한 남자와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는 모델을 원칙과 원리의 큰 그림

으로 제시하며 여러 가지 계명과 말씀들을 통해 동성애를 금하신 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명령”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못했으나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라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원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성경이 죄로 규정한 것들을 죄로 인정하며 죄와 싸우고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건함과 제도적으로 노력해 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 먼저, 동성애(동성결혼 포함)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야 한다”며 “자녀교육, 사회에

서의 법 제도화, 세계관 사고방식 등의 여러 삶의 영역에서 이 원리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둘째, 동시에 단순히 동성애 문제 한 가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및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셋째, 이 문제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단순한 정죄가 아닌 형제같이 대면하며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요8:1~11, 살후3:14)”고 했다.

그리고 “넷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가정을 세우는 남녀 간의 사랑의 원리를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해야 한다”며 “동성애, 간음, 이혼 등에 대해 성경적으로 교육하고 분명하게 설교해야 하며, 십계명과 지혜서가 가르치는 바 성경이 금하는 죄들에 대한 선명한 가르침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섯째, 무엇보다도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성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그러할 때 교회와 가정, 교회의 공동체성을 바르게 실천해 나가며 교육해 나갈 때 동성애, 간음 등 성적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대답이 묵회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캘리포니아 교회, 11만2천달러 벌금에 주차장 예배 전환

교인 수 3천여 명의 캘리포니아 대형교회가 대면 예배 금지 명령과 관련된 벌금이 112,000달러(약 1억 3,000만 원)를 넘어서자 시 당국과 분쟁을 중단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2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노스밸리침례교회(North Valley Baptist Church) 잭 트리버(Jack Trieber) 목사는 ABC7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카운티의 명령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회는 그 동안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5천 달러(약 583만 원), 찬양 금지 등 다른 위반 조치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받았다.

ABC7뉴스는 트리버 목사가 이번 주 야외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North Valley Baptist Church ©facebook

나의 개인번호를 건네주었고, 백악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난 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리버 목사는 또 지방 관공서에

백만 개 이상의 편지를 보내는 캠페인도 보류했다. 그는 “당국에 어떤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오늘 밤 야외로 옮기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했다.

카운티 법관 고문인 제임스 윌리엄스(James Williams)는 머큐리뉴스(The Mercury News)와의 인터뷰에서 “대면 예배 금지가 지역 사회 안전에 필수적”이라며 “우리 카운티 내의

교회 및 기타 종교 시설은 야외 예배, 드라이브 인 예배, 온라인 예배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실내에서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완전히 해롭고,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고 주장했다.

트리버 목사는 “카운티는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집회 제한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기도, 금식, 상담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야외로 옮김에 따라 카운티가 소송을 철회했다. 제게 이는 승리”라면서 “교회 건물 안에서 그러했던 것과 같이, 건물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ATS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 목회학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관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issions@aeu.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의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캘리포니아주 '예배 금지' 행정명령 거부한 존 맥아더 목사, 재판 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와 그의 교회가 폐쇄 명령과 관련한 LA 카운티와의 장기적 법적 싸움에서 정식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존 맥아더 목사가 이끄는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는 대규모 실내 모임에 대한 제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면 예배를 드려왔다. 그러던 중 이달 초 법원에서부터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자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교회는 그러나 평상시와 같이 실내에서 대면으로 주일에

배를 드려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LA카운티 고등법원 미첼 L. 베크로프(Mitchell L. Beckloff) 판사는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가 예배 금지 명령에 관한 정식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청문회를 계획했으나,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초가 되어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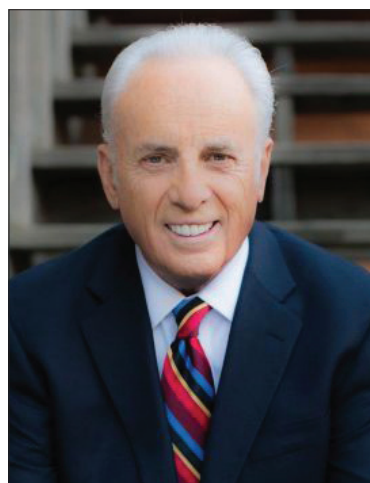
맥아더 목사와 교회 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나 엘리스(Jenna Ellis) 특별변호인은 “어떤 사람도 헌법상 무효한 명령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될 수 없고, 구속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 판결의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LA카운티는 제1수정 헌법의 (법적) 보호를 완전히 무시한 채, 명령이 유효하다고 계속 가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에는 도전할 수 없으며,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폭정”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합법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세운 법치주의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맥아더 목사는 단순히 교회 예배를 드렸을 뿐이며, 이는 분명히 이 나라에서 헌법으로 보호 받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의 진행 상황



존 맥아더 목사. ©페이스북

이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권리에 대해 계속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완전히 적법한 절차를 제공하고, 이 같은 헌법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베크로프 판사에게 매우 감사한다”며 “현실적으로 카운티는 그들의 명령이 합리적이며 훨씬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없다. 또 명령을 교회에 독단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우리는 미국에서 교회를 열기 위해 강화된 보호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난 계속 굳건히 서 있으며, 교회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과 관련, “우리는 교회를 붙들고 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모

강해진 기자

펜스 부통령 “미국은 신앙의 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자”



9월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도행진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부인 카렌 펜스 여사.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새 대법관 지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위한 기도 요청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26일 링컨기념관에서 열린 회개와 중보기도 모임에서 “미국은 신앙인들의 나라”라고 강조했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회개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한 ‘더 리턴(The Return)’ 워싱턴 기도행진은, 수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링컨 기념관에서 시작해 미국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마무리됐다.

강연자들은 “미국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펜스 부통령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 미국 지도자와 국민들은 어려운 시

기에 기도했다”면서 “조지 워싱턴은 워싱턴의 지도자들과 직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곳을 당신의 거룩한 보호 안에서 지켜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했다. 아브라함 링컨은 백악관에 있는 동안 ‘달리 갈 곳이 없다’는 믿음으로(하나님 앞에) 여러 번 무릎을 꿇었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이 신앙인들의 나라임을 수 차례 목격했다”며 “대통령과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에게 손을 뻗은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달콤했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여러분 모두가 행정부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 의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대법관의 판사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

미 코니 배럿 판사에 대해 언급했고, 관중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세계적인 유행병의 여파 속에, 여러분들이 상실과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미국을 이끌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행하셨던 대로 행하실 것”이라며 “이 나라가 훨씬 더 힘든 도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래 한 국가’(One nation under God)인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 땅은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와 정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故 빌리 그래함 목사 딸 로츠, “미국은 심판 앞에 있다” 회개 촉구

故 빌리 그래함 목사의 딸이자 ‘엔젤 미니스트리’의 대표인 앤 그레이엄 로츠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작은 기회의 문을 갖고 있다”며 “만일 그것을 택하지 않으면 엄청난 심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로츠 목사는 미국은 학교에서부터 정부까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지위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먹을 휘둘러 왔다’고 지적했다.

로츠는 로마서 1장이 설명한 ‘하나님의 응징하시는 심판’을 인용하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저 물러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손에 넘겨 주시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라 믿는다”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우리 나라를 찾고 있으며, 하나님이 없이는 그분의 보호와 지혜도 있을 수가 없다. 조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녀는 “미국은 사회적, 인종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사악한 사람들(evil people)”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들(un-thinkable tragedies)”에 달려 들었고 “더욱 그들의 사악한 의제(further their wicked agendas)”로 확산시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최근 전 세계적 대재앙들이 성경이 언급한 ‘해산의 고통(birth pains)’ 중 일부라고 믿는다



앤 그레이엄 로츠 목사 ©NRB

며 “회개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미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1년전 유방암 치료를 마치고 회복 중인 그녀는 건강 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로츠는 “예수님을 만나기 5분 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른 일은 하지 않았을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며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로츠 목사는 26일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열린 ‘더 리턴: 세계 회개와 기도의 날’ 행사에 참가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기도의 날 행사에는 전세계 부흥을 위해 150개국 이상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이날에는 로츠 목사의 동생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가 이끄는 ‘워싱턴 기도행진 2020’ 행사도 따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문화매시마포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 북부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칼럼/상담 경력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미국 목회자 92%, “코로나에도 교회는 살아남을 것” 확신



바르나 리서치 그룹은 미국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난 후 예배 참석률 감소를 예상한 반면, 목회자의 92%는 교회가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바르나는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422명의 개신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처치 퍼스’가 조사한 17주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7주 동안 목회자의 46%는 위기가 끝날 때쯤 교회 출석률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6%는 ‘상당한 감소’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0일에 조사가 시행된 이후로 가장 많은 수가 출석률 감소를 예상했다. 첫 6주 동안 조사에서는 ‘약간 감소’를 예상한 응답은 20%를 밑돌았으나, 이후 12주가 지나자 40%로 증가했다.

교회 출석률이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92%는 ‘매우 자신 있다’거나 그들의 교회가 지금의 위기에 서로 ‘생존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올해 초, 미국의 대부분 교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예배 모임을 중단하며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등 몇 개 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미국 교회가 현장 예배로 복귀한 상태다.

바르나의 조사에서 목회자의 54%는 평소 교회 건물이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15%는 이달까지, 23%는 10월까지는 지금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13%는 내년까지 가능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65%는 그들의 교회가 지침을 따라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개방돼 있다고 답했으며 2%만이 별도의 주의사항 없이 교회가 개방되어 있고 16%는 소규모 모임이나 회의 시에만, 11%는 교회 직원들만을 위해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그러나 목회자의 2%는 오직 긴급 상황에만 교회를 개방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4%는 교회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닫혀있다고 답했다.

이어 목회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성도들의 개인적 믿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첫 3주 동안 조사에서는 1%만이 ‘그렇다’고 답한 반면, 최근 17주차에는 목회자의 18%가 성도들의 믿음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로 교회 참석과 헌금, 선교에 대한 참여 및 미국 성도들에게 끼칠 장기적인 어려움들을 예상해 왔다.

데이비드 키나만 바르나 사장은 지난 8월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NPR)’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한 교회 폐쇄의 결과로 향후 18개월 이내에 5개 교회 중 1개 교회는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키나만은 “기부와 관련된 붕괴 현상은 어쩌면 모든 것에서 중요하다”면서 “다시 문을 연 교회들은 훨씬 적은 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것이고, 단순히 교회를 재개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질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고 예상했다.

키나만은 또한 “우리는 이 전염병을 미국인들이 교회 참석과 헌금을 다루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분명 모든 교회는 다시 개방한 후에 오히려 온라인 참석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나에 따르면 첫 2주간 목회자의 32%는 헌금이 약간 감소했으며 47%는 현저히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17주간 평균에서는 22%가 약간 감소했다고 나타났으며 현저히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5%에 그쳤다.

김유진 기자

美 감리교 로고가 인종차별을 상징한다?

미국 연합감리교(UMC)의 한 지역 교구가 “교단의 로고가 인종차별을 상징한다”며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을 승인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23일 보도했다.

UMC 텍사스 북부 교구 총대들은 최근 진행된 비즈니스 세션 회의에서 찬성 558표에 반대 176표로 청원을 승인했다.

엘든 코울리(Elden Cowley) 목사가 제기한 이 법안은, 1960년대 이후부터 사용해 온 십자가와 불꽃 모양의 교단 로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의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법안 회의에서, 한 총대는 이를 위해 내년 총회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지 질의했다. 이는 UMC가 오는 2021년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된 오랜 논쟁 해결을 위해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의 프로토크’ 계획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코울리 목사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지금도 이를 위해 움직일 자신이 있다”고 했다.

코울리 목사는 지난 7월 교단지 UM뉴스(UM News)에 기고한 글에서 로고 변경을 지지하면서, “로고에 들어간 휘장이 의도치 않게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단 로고인 십자가와 불꽃을 볼 때, 나는 존 웨슬리의 뜨거웠던 마음이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불이 떠오르지 않았다”면서 “내 마음은 고속도로

한편에서 보았던 불타는 십자가로 향했다. 그것은 어머니가 내게 ‘흑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말한 상징이었다”고 덧붙였다.

UMC 휘장은 1968년 감리교와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가 합병된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두 불꽃은 하나가 되어 UMC를 이룬 두 교회와 성령을 상징하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의미한다.

이 같은 카울리 목사의 제안과 관련, SNS에는 “총회가 ‘취소 문화’를 조장하며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주장이 올라오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한 인사는 카울리 목사의 칼럼에 대해 “십자가는 많은 무슬림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없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해진 기자



미국 연합감리교 로고.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송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침례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어린 2세를 영육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행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len 코너)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단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회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친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 금) 오전 5:30
12세예배(델리안데) (소매별)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신.초 정신의 흠뻑,바른교회관의 흠뻑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 금) 신도모임가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 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교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 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출석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종교개혁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일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2부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고 내 길에 빛이오니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종교개혁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침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종교개혁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밤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아침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MP리제물 335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성경회 오후 7:30 수요일성경회 목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4 Rhoads St., Northridge, CA 91329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T. (818)935-5887 T. (818)937-3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려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종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종고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종교개혁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쁨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종교개혁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 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 유종고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소망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일성경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17910 Prair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m.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팬데믹 기간 동안 성경공부 앱 사용자 1천%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성경공부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10배 증가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BSF(Bible Study Fellowship)에서 만든 '워드고'(WordGo)는 성경 읽기, 질문, 학습 노트, 오디오 교육을 결합한 2주 및 6주 길이의 성경 공부 코스를 제공하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다. 워드고 앱의 사용자는 올해 1월과 7월 사이에 1천% 증가했으며 사용자의 4분의 3이 여성이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사이먼 레눅스 워드고 이사는 "이 애플리케이션은 성경 읽기의 지속 가능한 일상 리듬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상호 작용이 대면적 만남에서 벗어나면서 교회의 공동체적 측면을 성장시킬 좋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워드고"는 사용자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 공부의 리듬을 만들어 코로나19로 인한 폐쇄 기간 동안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훌륭한 방법이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국성서공회(ABS)가 발표한 '성경의 현 위치'(State of the Bible)라는 제목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성경 참여가 감소했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인 교회 예배 환경 밖에서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미국 성인의 3분의 1 이상(35%)이 현실적으로 대규모 교회 예배나 미사 외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대답했지만 2020년 6월까지 그 비율은 31%로 떨어졌다. 매일 성경을 읽는 미국인의 비율도 올해 중반까지 10분의 1(9%) 아래로 떨어졌으며, 이는 '성경의 현 위치'에 관한 첫 번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ABS의 존 플라이크(John Farquhar Plake) 박사는 "이 연구는 교회가 사람들의 복지와 성경 참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이슬람 국가 박해 피해 떠난 이라크 기독교인들 귀향 시작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이라크 기독교인 마티(Mathi), ©Open Doors UK & Ireland

이슬람 국가(IS)의 박해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20일 보도했다. 지난 2014년 이라크 북부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 마티 하비브(Mathi Habib Khodor) 씨와 그의 아내 나지크(Nazik)는 여섯 자녀와 함께 고향을 떠났다. 그로부터 6년 후 그들은 재건된 고향에서 코로나19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55세가 된 마티는 "우리는 5년 전 떠난 집을 장식했다"면서 "우리와 함께 이 집을 떠났던 아이들에게는 집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다. 아이들이 여기에서 그 시절을 되살리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이슬람 국가로부터) 해방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고향인 카라코쉬(Qaraqosh)로 돌아 왔을 때, 이 곳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는 "나는 울고 있지만 했다"면서 "아름다운 도시가 얼마나 황폐한 지역으로 변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집들이 파괴되거나 불에 탔고 거리에 쓰레기가 있었다. 그 집들은 버려졌고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지만 재건을 결심했다. 이같은 재건 노력의 일환으로 오픈도어는 이라크 기독교 가정 2천여채를 복원하

는데 도움을 주었다. 마티는 "이 도시는 죽어 있었지만 지금 다시 살아났다. 내 집이 재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이슬람국가(IS)는 우리를 없애버리려 했지만 집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카라코시 재건위원회 위원장인 조지(George) 신부는 "2017년 5월 우리는 카라코시 재건을 시작했다. 우리는 집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피해가 적은 집에서 작업을 시작한 다음 부분적으로 파괴되거나 전소된 집에서 작업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파괴된 집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면서 "제로(0)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지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재건 노력은 이슬람 국가의 박해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소수 기독교 공동체에 절실히 필요한 격려였다. 조지 신부는 "우리는 이 도시에서만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은 558채의 집을 복원하고 256채의 불에 타 버린 집을 복원할 수 있었다"며 "이 도시에서만 860가구가 이상이 오픈도어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희망이 끊어진 가정들이 이 곳으로 돌아와 새 출발을 하도록 장려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지성호 의원 “정부의 굴종적 저자세, 안보 불안 가중”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불태운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소름이 끼친다”며 정부의 굴종적 저자세가 초래한 안보 불안을 지적했다. ©지성호 의원 제공

北의 야만적 행태와 우리 정부의 대응 비판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불태운 것에 대해 “북한 정권의 야만적 행태에 소름이 끼친다”며 정부의 굴종적 저자세가 초래한 안보 불안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서 “지난 21일 서해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있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며 “2008년 故 박왕자 씨 피격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 공무원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최근에 김정은 고모부인 장

성택을 참수해 머리 잘린 시신을 간부들에게 전시했다는 외신기사가 보도되었는데 북한의 인권침해가 북한 내부에서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 국민에게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하는 중에 이런 반인권적 행동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구애에 대한 화답이 바로 우리 국민 총살인가. 매시각 벌어지는 북한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이 인권침해 문제는 뒤로한 채 남북협력력을 강조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굴종적인 저자세 대응에 국민의 안보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철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레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Youth Services: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O.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미재향교회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기초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C) 오전 9:30
 철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복수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로제 실시. EBSUS 복수 생으로 활로 살려 생애공로제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cf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충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주일 오전 6:00

최순길 담임목사

LA 임마누엘교회
 562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T. (714)743-0141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목요일예배: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회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토)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말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English Ministry 오전 11:30 Hispanic Service 오전 9:30
 주일학교/중고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풍성한 신하심을 누리는 공동체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미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용 담임목사

엘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철년 영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철년 영이) 청년부 수요일예배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철년 영이)

이서 담임목사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영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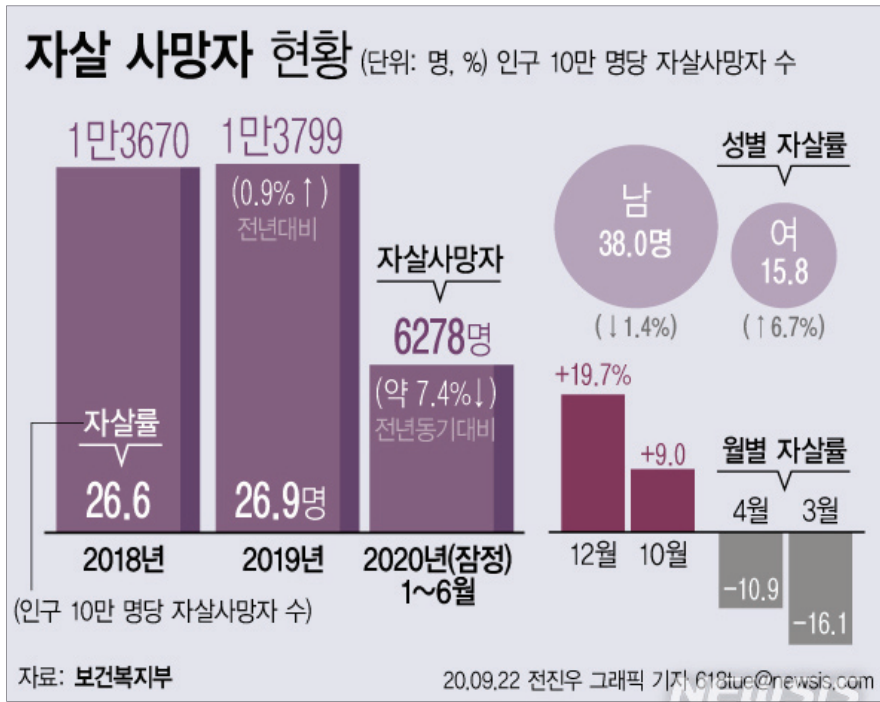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한국 작년 하루 평균 38명 자살... OECD 1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자살·교통 사고·산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자살률을 17명으로 낮추어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내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을 벗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자살률이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의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자살률은 26.6명으로 2018년(26.6명)보다 높아졌다. 2017년(24.3명) 이후로 2년 연속으로 자살률이 높아졌다. 2013년(28.5명) 이후 4년 연속으로 낮아지던 자살률이 다시 높아졌다. 자살 사망자 수도 2017년 1만2463명에서 2018년 1만367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3799명으로 더 늘었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37.8명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의 사망률 1위가 암이었지만 10~30대는 자살이었다. 특히 20대 사망원인의 51.0%가 자살이었다. 40대와 50대는 사망률 2위가 자살이었다.

작년의 경우 10대와 20대, 60대에서 자살률이 각각 9.6%, 2.7%, 2.5%씩 증가했다. 반면 70대(-5.6%), 80세 이상(-3.4%) 고령층에서는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자의 자살률이 38.0명으로 여자(15.8명)보다 2.4배 높았다. 다만 남자 자살률은 전년 대비 1.4% 감소했고 여

자는 6.7%나 증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국가별 연평균의 차이를 제거한 ‘연령표준화 자살률’에서도 한국의 자살률은 24.6명(2019년)으로 OECD 평균(11.3명)의 2배가 넘는다.

고령화로 치매 사망 증가... 사망원인 1위 ‘암’

전체 사망원인의 69.1%를 차지하는 10대 사망원인 중에서 알츠하이머병이 2018년 9위에서 지난해 7위로 올라섰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치매로 인한 사망률은 20.2명으로 2018년(19명)보다 1.2명 높아졌다. 2009년(11.8명)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수준이 된 것이다.

알코올로 인한 사망률은 9.1명으로 2018년(9.6명)보다 낮아졌다. 알코올로 인한 간질환·위암 등으로 인한 사망률을 집계한 것으로 남성의 사망률(15.8명)이 여성(2.5명)보다 6.4배 높았다.

사망원인 1위는 암이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2018년(154.3명)보다 3.9명 늘어난 158.2명이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2명), 간암(20.6명), 대장암(17.5명), 위암(14.9명), 췌장암(12.5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식도암(8.2%), 유방암(6.8%) 등의 사망률은 증가했으며, 위암(-1.6%), 간암(-0.3%)은 감소했다. 서더은 기자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가을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서론, 신론) Systematic Theology I	Elijah Kim
Tue	7:00 PM - 9:00 PM	교리, 목회서신 Catechesis, Pastoral letter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사무엘 상, 하 Samuel 1st and 2nd	Timothy In Song
Thu	7:00 PM - 9:00 PM	현대신학 3 Modern Theology 3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예배학 Christian Worship	Jong Yong Kim
Sat	7:00 PM - 9:00 PM	리포트, 논문 Research & Writing	Young Joon Ko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은서(恩書)를 만난 사람의 행복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은인(恩人)을 만나게 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인이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은인이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은인은 우리를 예쁘게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입니다.

은인은 우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더 잘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은인과의 만남은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좋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꾸는 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만남을 가꾸는 지혜는 겸손에 있습니다. 교만하면 좋은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약 4:6). 은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인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좋은 만남을 가꾸는 지혜는 감사에 있습니다. 은인이 베풀어 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둘째, 하나님은 좋은 책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인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책은 은서(恩書)라고 합니다. 은서는 좋은 책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인 그리고 은서입니다. 은서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책 읽는 것은 그들 위해 기도하던 친구가 전해 준 C. 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를 읽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책 읽는 생애는 놀라게 변화되었습니다.

은서(恩書)란 우리 눈을 열어주는 책입니다. 은서를 만나면 우리 자신의 진면모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점도 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감춰진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됩니다. 은서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성장 본능이 있습니다. 성장 본능이 있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영적 성장은 자극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은서는 우리가 성장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해 줍니다. 또한 성

장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 줍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 목표를 가지고 책을 읽고 배우도록 자극해 줍니다.

은서(恩書)란 우리를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생각의 근육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은서란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는 책입니다. 사고력은 모든 활동의 기초입니다. 올바른 사고하는 능력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경제 활동도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 집니다. 좋은 책 속에 길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책 읽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습니다. 소통을 잘합니다. 좋은 책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과거의 경험과 아집과 고집 속에 살게 됩니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 생각은 유연해 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 생애를 바꾼 은서 중의 은서는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행복과 영혼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케 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요케 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좋은 책을 읽으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서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가 지속되고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디 성경과 좋은 책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뜻의 사자성이입니다. 영어로는 "If you were in my shoes"라는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직역하면 "당신이 만일 내 신발을 신고 있다면"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북미 원주민인 인디언들은 사슴 가죽으로 만든 모카신(moccasin)이라는 신을 신었는데 이 신발은 뒤축과 굽이 거의 없는 데다가 밑창까지 얇아 험한 길을 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발을 신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그렇게 느림보 걸음을 걷느냐고 몰아세운다면 그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면 평소엔 잘 몰랐던 것들이 이해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휴가는 기대하거나 어디를 갈 생각조차도 못했지만, 코로나 시대가 주는 색다른 은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순종해야 할 일이라는 단순한 생각의 강제휴가(?)와 같았는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역지사지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외부 집회일정은 전부 취소되고 썩썩도 못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일에 정신이 없었던 저에게 이번 열흘은 입장이 반대로 바뀌어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론 저 혼자 있는 곳에서, 때론 외부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시간 온라인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같을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태도와 분위기는 결코 쉽지 않았고, 교회당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것과도 달랐습니다. 벌써 6개월이 넘도록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들지,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마음이 쩡하고 눈물이 핑 돌습니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사랑이 한 줄기 빛처럼 더욱 간절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의 아름다운 빛이 어둠 짙은 밤에는 가슴을 뛰게 할 만큼 찬란하게 비추임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짙어도 어둠이 아니라 빛에 반응하면 더 깊은 감동과 벅찬 환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고 악이 승할 때에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어느 것을 보느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둠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 탄식과 절망에 더 깊이 빠져들 뿐이지만, 어둠이 아닌 빛을 바라보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해도, 인종문제와 대선 등으로 서로를 미워하는 극단적인 분열의 비탄 뉴스가 가득해도, 경제와 생활이 지치고 힘들어도, 참 빛으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되신 예수님을 더 가슴 깊이 만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특별한 배려와 사랑으로 섬겨 주신 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국의 추석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밝고 둥근 달 같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옵도록 기도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는 축복



박진우 목사
켈러한인제일침례교회 담임

디어 가도 있는 듯 없는 듯한 소심한 아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밝아 보였지만 마음 속에서는 항상 열등감으로 가득차 있는 소심하고 자신이 없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항상 외롭고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소를 타다가 실수로 친구의 팔을 부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가 난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의 뺨을 무자비하게 때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았던 저는 더욱 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의 눈도 잘 못 마주치는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이 없는 학생으로 자랐습니다. 친구들과 친하게는 지냈지만 마음 속에서는 그들 사이에서 항상 아웃 사이드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의 처지가 보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체들은 거의 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

릴때부터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 대부분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 왔던 지체들이라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신앙의 안정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항상 아웃 사이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과분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워낙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어디 가든 인정을 받았습니. 특히 교회의 일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면 항상 저는 뒷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보다는 제 아내의 남편으로만 불려졌습니다. 박진우라는 제 이름을 불러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정은 선생님의 남편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아내의 사랑에서도 2순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아웃 사이드가 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온 목사님들의 대부분은 다 믿는 가정에서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거기에는 큰 교회 목사님의 자제분들이나 교회 중직자분들의 자제분들이 많

아서서 공부를 마치면 부모님들 덕택으로 안정된 사역자리를 찾아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저와 같이 믿지 않는 부모님 에다가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은 사역을 시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목회 준비를 하더라도 사역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아웃 사이드일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꼭 저와 같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의 첫번째 기적인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름도 밝혀 놓지 않은 인간 취급을 못 받던 하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큰 복을 받았습니. 그 복은 바로 그 기적이 어디 있었는지 아는 복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진 포도주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물로 포도주로 바뀐 기적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인들은 알았습니. 물로 포도주를 바뀐 기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자 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는 것이 복입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그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인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참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이 항상 아웃 사이드처럼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숨을 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와 죽을 수 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연회장은 물론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 2:9)

저는 장어를 가지셔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아버지와 배움이 짧으셨던 어머니로 인해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으로 인해 저는 항상 어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고화질, 부동화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폴터두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C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파동 에너지 쿠션 죽초액 발매트

-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들게 한다.
-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죽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무전압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 5:18-31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18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 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21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22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 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 이르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26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함이요 28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요 29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로 그의 목에 드리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째 치리자를 삼으라 30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 메대 사람 다리오는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욕심이 세었더라

1.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 함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범죄 한 자기 백성들의 죄 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속히 깨달아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생활과 바벨론에서의 노예생활은 세상적 조건으로 볼 때는, 호적도 없는 노예 신분으로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 예레미야 29장 11-13절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풍동으로 삼아 쓰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치셔서 7년이란 세월을 벌판에서 미친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 제대로 섬긴다면,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자리에서 몇 년을 더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2.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 인생의 최후

본문은 바벨론의 일곱 번째 왕인 벨사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요직에 있는 부하 일 천 명을 위해 잔치를 열고는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은과 금으로 된 그릇들을 모두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이 은, 금 기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던 것들인데, 이들은 이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그들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있을 수 없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5장 5절을 보면 “그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했습니다. 이것은 길조가 아닌 흉조가 분명하다고 느낀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불안해하며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을 불러 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을 불러 “무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우고 그로 나라의 세째 치리자를 삼으리라”(단 5:7)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높이 세우고 자기 다음가는 권세를 주

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뜻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불안해 한다는 말을 들은 왕의 어머니가 나아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위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트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단 5:11-12)고 하는 말에 왕은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벽에 써진 글의 내용을 해석해 주면 자주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드리우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고 다시금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그 글의 해석을 하는데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벽에 쓰여진 글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메네”는 세어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이고, “데겔”은 달아보라는 뜻으로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바르신”은 기본적으로 나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베레스”는 “바르신”의 복수형으로 앞에 “그리고”에 해당하는 ‘우’를 붙여서 왕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벨사살은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일들을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습니다.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재를 거역했습니다. 하

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로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BC 539년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페르시아) 연합군으로 하여금 바벨론을 치게 하였고, 그날 밤 바벨론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로 넘어갔다(단 5:31)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바벨론왕 벨사살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산해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처리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적인 성과를 위하여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대가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대한 기대만큼 관심과 대접도 반드시 달라져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가지고 교만해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세상 것은 배운 것이 없어도 성령의 가르치신 지혜와 감동에 의해서 영적수준이 성숙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새로워지고 관심과 대접이 확실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달라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펙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 손가락
 - ✓ 발가락
 -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탈모
- 치질
- 갑상선
- 당뇨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고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얼굴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는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초조, 식은땀
- 갑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때때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안녕하세요.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원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올해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역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후,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을 돕기 위해 각 가정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를 통해 각 지역사회에 요구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인터넷, 전화, 우편 또는 센서스 인구 조사원을 통해 응답하세요.

2020CENSUS.GOV/ko
또는 전화 **844-392-2020**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세요.

이 광고는 미국 인구조사국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미래
지금 시작하십시오 >

United States®
Census
2020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물란> (上)

<물란>, 잇따른 논란보다 심각한 디즈니의 '창의성 결여'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화 <물란>.



영화 <물란>은 서사, 역사 고증, 연기 등 모든 측면에서 흑평을 받고 있다.

◆예술행위의 창의성: 디즈니 콘텐츠의 퇴조와 창의성 결여

지난주 목요일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영화 <물란>이 개봉했다. 개봉 전부터 주연배우 유역비의 홍콩 민주화 운동 비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 작품은, 개봉 후 평단과 관객 양측으로부터 모두 처참한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서사의 개연성과 액션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모두 평가 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물란>은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중국 내 반미감정의 여파로 중국 극장가에서조차 관객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여파에다 작품에 대한 평가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이대로라면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하는 성적을 낼 가능성이 크다.

사실 <물란>뿐 아니라 최근 디즈니에서 내놓는 콘텐츠 상당수가 창의성을 잃어버린 채, 이전에 여타 프랜차이즈들이 창안한 캐릭터와 서사, 그리고 세계관에 의존해 우려먹기로 내놓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2000년대 들어와서 오리지널 월트 디즈니 프랜차이즈에서 제대로 된 성공을 거둔 작품은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와 <겨울왕국> 시리즈뿐이다.

두 시리즈가 워낙 큰 성공을 거둬서 문헌감이 있지만, 그 외 디즈니 프랜차이즈에서 제작된 작품 대부분이 흥행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1990년대 디즈니 르네상스 마감 이후 디즈니가 고유의 창조적 콘텐츠 기획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어쩌면 막강한 자본력으로 M&A

에 몰두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 모른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1990년대부터 ABC, ESPN, 픽사, 마블 스튜디오, 루카스필름, 21세기폭스,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을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의 미디어 제국을 건설했다.

이 가운데 픽사와 마블 스튜디오, 그리고 루카스필름 등 인수한 자회사들이 제작한 영화들이 충분한 흥행 성적을 내주면서, 디즈니 자체의 콘텐츠 제작 역량은 정체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 더해 그룹의 중심이랄 수 있는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의 콘텐츠 제작 및 연출력이 약화되면서, 전문학적 금액을 들여 인수한 자회사 프랜차이즈들의 콘텐츠 창의력도 점차 약화되는 모습이 목격된다.

마블은 MCU 페이스 3의 최후반부를 장식한 <어벤저스: 엔드게임> 이후 이렇다 할 흥행 대작이 없고, 픽사 역시 최근에는 <토이스토리> 초반 시리즈와 <인크레더블> 초반 시리즈처럼 막강한 흡입력을 보여주는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루카스필름의 <스타워즈> 시리즈는 무리한 설정 파괴와 정치적 올바름 성향 때문에 원래의 팬덤을 상당부분 잃어버린 상황이다.

이번 개봉된 영화 <물란> 역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즈니 콘텐츠의 퇴조 현상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물란>은 애초 타겟이 되는 시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남북조 시절 훈족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한족 소녀의 전설 <물란사>를 바탕으로 삼은 작품인 만큼, 중국 시장 공략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개연성과 치밀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중화사상에 맞춘 서사를 선보이고, 촬영 로케이션을 신장위구르 자치구로 정했으며, 친중파 배우 유역비, 견자단, 공리 등을 주연 및 주연급 조연으로 캐스팅했다.

애초 기획 단계부터 반중 기류가 강한 나라들에서의 흥행을 포기하고, 중국 흥행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좋지 않다. 중국 현지 관객들은 <물란>의 고증이 형편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남북조 시대의 생활양식, 복식, 사회 분위기, 정치문화 등에 대한 역사적 고증 없이 헐리우드에서 서구 중심적으로 각색한 설정들만 뒤섞여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사 역시 설득력이 없고 공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로써 월트 디즈니 프로덕션은 1998년 애니메이션 <물란>과 함께 디즈니 르네상스가 종결된 이후 시달리던 고질적 창의성 결여, 기획력 부재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예술행위의 종교성: 인간의 심층적 종교성으로부터 탄생한 예술행위 디즈니 산하 프랜차이즈 전체를 총괄하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입장에서, 아직 콘텐츠 사업 전반의 사업 성과는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OTT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콘텐츠 기획력이 약화되던 중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분명 난관에 처해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란>의 저조한 성적과 평가로

확인된 것처럼, 수익에만 몰두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끝내 그 예술적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술활동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인류의 예술활동은 애초 그 뿌리를 인간의 원초적 종교성과 조월 열망에 두고 있다.

인간의 이 심층적인 정서와 열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은 이미 그 뿌리를 잃어버린 바, 결국 본연의 매력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예술사학자 에른스트 고프리치는 구석기 시대 크로마뇽인들의 라스코 동굴벽화,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들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 확인되는 인간의 원초적 종교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곰브리치에 의하면, 구석기 시대 원시인들이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들이 아직 문자를 갖지 못해 그에 대해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린 그림 대부분은 그들이 사냥하던 짐승들을 그린 점, 그리고 이 그림들을 내탕에 환하게 볼 수 있는 곳에 그린 것이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불을 피우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깊은 동굴 속에 그렸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유추해 본다면, 이 그림들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사냥감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술적 염원을 담은 것으로서, 동굴 속에서 행해지던 어떤 종교적 의식과 연관된 예술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인류 최초의 예술행위가 이처럼

삶의 풍요를 갈망하는 종교적-주술적 의미를 담았다는 사실은 예술의 기원이 인간의 종교성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예술행위는 분명 유희이자 놀이의 일환이지만 그 뿌리를 인간의 심층적 종교성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권태를 달래는 놀이와는 구별된다.

예술은 놀이 안에 삶의 근원적 의미와 다양한 가능성을 담아내려 한다. 그리고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존본연의 유한성을 극복하려는 초월의 열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가 결여된 예술은 스스로의 기원을 잃어버린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물란>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수익 추구에 몰두하다, 원작 애니메이션 전반에 표현된 자기 이해와 초월 열망 모티프를 잃어버렸고, 이로 말미암아 중국의 평가 무형영화 수준의 서사와 연출을 보여주며 평가와 흥행 양면에서 실패를 자초했다.

이는 정치적 올바름 운동의 탈을 쓴 알파한 상업주의 예술의 필연적 귀결이라 볼 수 있다. 기독교를 비롯한 대다수 종교사상에 무관심하다 못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치적 올바름 운동은 인간의 예술행위가 가지는 핵심 가치인 종교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편향된 정치적 견해와 이익 추구 욕망을 채워넣으려 한다.

디즈니 계열 프랜차이즈 전반의 콘텐츠가 점차 그 매력을 잃어가는 데는 이러한 이유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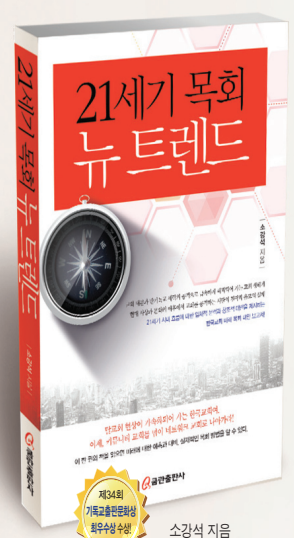
결국 디즈니 콘텐츠 제작자들의 편향한 인간 이해가 그들이 내놓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매력을 감퇴시키고 있는 것이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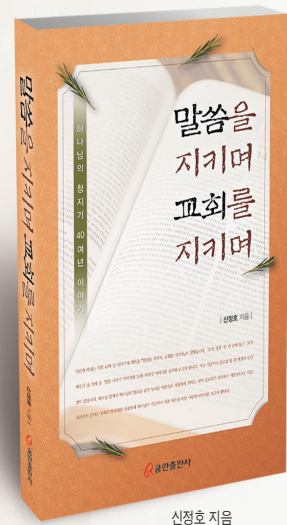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에,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명확한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말간 문세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말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례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고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미션 퓌리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교회대상, 찬양문화대상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직장,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지평스카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철학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절실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철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주노회장, 총회 간, 농어촌 부흥, 회의록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교회보 논설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한신대학교 이사, 한국노인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철호 저음 380면 / 15,000원



- 1) Covid-19로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는데 애가 집중도 못하는거 같고, 관리가 잘 될까요?
- 2) 아이가 고등학생이라 중요한 시기인데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예요..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3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8월 10일 개학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